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교지에서의 식사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것은 선교사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의 매 끼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선교 사역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 선교팀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식사 기도문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선교 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1 - 감사와 헌신의 기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선교지에서의 첫 식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우리에게 주신 음식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이곳에서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차려진 이 음식을 통해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2 - 선교지 주민들을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19)

선교지에서의 식사 시간은 단순히 우리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 주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음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도 오늘 굶주린 이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는 달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활동이 이 땅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3 - 팀 하나됨을 위한 기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단기 선교팀으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팀의 하나됨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는 다르지만,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있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선교 기간 동안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4 -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시편 121:7)

선교지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낯선 환경과 기후, 그리고 다른 음식들로 인해 우리의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위장 질환이나 감기 등 흔히 생길 수 있는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향이 그리워지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곳에서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5 - 결실을 위한 기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16)

선교 사역의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귀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일이 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단기 선교가 끝난 후에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기 선교 식사 기도문 6 - 마지막 날을 위한 기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7)

단기 선교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는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앞으로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이러한 기도문들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선교 관련 자료와 기도문은 (금란교회 선교부) (https://www.kumnan.org/board_mPeU8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